

# 법계관문(法界觀門)

## “화엄종 실천 수행법이다” “화엄세계 설명 이론일뿐”

### 불교학연구회 발표회서 뜨거운 논쟁



◇신규탁 교수 ◇이호걸 교수 ◇본락 스님

‘법계관문(法界觀門)’은 화엄종의 수행법인가, 아니면 화엄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일 뿐인가. 2일 불교학연구회 제1차 월례발표회장은 이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논쟁은 ‘법계관문은 화엄종의 수행법인가?’라는 신규탁(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논문 발표에서 비롯됐다. 이 논문에서 신 교수는 “법계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법은 그 자체가 실천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불법 실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법계관문은 화엄종의 초조(初祖)인 종남두순(終南杜順) 선사의 글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화엄경)에 수록된 ‘보현행일품’과 함께 화엄종도로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방편을 소개한 화엄종 특유의 ‘수행 지침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신 교수에 따르면 수행법이라 함은 반드시 열반의 체득이나 번뇌로부터의 해탈과 같은 궁극적인 목적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법계관문’에는 이와 같은 궁극적 목적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법계관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관법인 진공관(眞空觀)·이



사무애관(理事無礙觀)·주변합용관(周遍含容觀) 등은 화엄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발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실천의 방편을 남김없이 알려주는 수행의 지침은 아니라는 것이 신 교수는 힘을 실었다. 법계관문은 선종의 참선수행·천태종의 지관수행·밀교의 진언수행 등과 같은 화엄종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라는 데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대해 논쟁에 나선 이호걸(안동대 철학과) 교수는 “법계관문은 깨달음을 쫓는 불교적 수행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신 교수와 같이 행(行)만이 불교의 수행

이론일뿐”이라고 반박했다. 화엄의 세계관을 체화하는 과정인 이해·발심·실천 등의 단계는 두부 모 자르듯 명쾌하게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즉, 화엄의 세계에서 수행 체계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인과원만(因果圓滿)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계관문은 보현행원과 같이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락(중앙승가대 교수) 스님 역시 “법계관문은 공색(空色), 이사(理事),

회귀(會歸) 등의 용어로 짜여져 이론처럼 보이지만, 그 글의 목적은 합일의 경지에 나아가는 실천 수행에 있다”며 신 교수의 주장을 비판했다. 화엄관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개념의 혼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觀)이라는 글자에 미혹하여 법계관문의 ‘관’자를 ‘지관(止觀)’이나 ‘위빠사나’에 끌어 붙여서는 안 된다”며, 법계관문은 화엄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 실천을 이끈다는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다. 화엄의 세계는 실천으로 만들어진다는 데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보현은 법계로서 몸을 삼는다” 등과 같이, 일반 사람은 두말 할 것도 없고 학자나 수행자까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경전에 기록된 화엄의 세계는 추상적이다. 신 교수의 ‘법계관문은 화엄 교학’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내 화엄 학자들의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화엄의 세계관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 조계사 대웅전 서울시 문화재 지정

조계사 대웅전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안봉원 경희대 교수)를 열고 10일 조계사 대웅전을 시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조계사 대웅전은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최대의 공사를 통해 탄생한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로서 규모나 미적 면에서 최고의 목조건물”이라고 밝혔다. 단층다포식 팔작지붕으로 된 조계사 대웅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로 전복 정음에 있던 중산고 일파인 보천교의 본당건물을 1937년에 옮겨 지은 것이다. 건물의 첨차모양이나 첨차에 올려진 연꽃과 공포내부의 첨차 조각 등은 조선 후기의 양식적 특징

을 잘 보여준다. 일제시대에 건립되었지만 일본식 구조나 의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경복궁과 덕수궁 등 궁전건물을 참고하여 세웠다. 조계사 대웅전은 특히 조선시대 승려도성입성 해제 이후 흥분산 건립운동으로 지어진 건물로 근대 불교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문명대 교수는 “당시 전 불교계가 합심하여 중산차원에서 조성했다는 불교사적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 대웅전 내 목조석가불좌상(제125호)과 후불탱화(제126호) 역시 지난 7월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 “고려말 불교 혁신세력 조선 건국 결정적 역할”

#### 황인규 박사 ‘고려말 이성계...’서 주장

이성계의 조선왕조 건국은 고려말부터 불교계 혁신세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제의 논문은 황인규(동국대 강사·사진) 박사의 ‘고려말 이성계의 불교계 세력기반’.



1361년부터 1408년까지 이성계의 행보를 중심으로 불교계를 고찰한 이 논문에서 황 박사는 “무학 스님은 새로운 왕조의 창업을 중용하고, 신조 스님은 위화도 회군 당시 군사적 전략을 조언할 만큼, 고려말 불교계 혁신세력은 조선왕조 건국의 결정적 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에 따르면, 무학 스님은 1384년(우왕 10) 무렵에 석왕사에서 이성계에게 신왕조를 창업을 것을 중용하였는데, 이 같은 기록은 (음보여천기) 제29장과 (석왕사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학 스님이 정도전보다 먼저 이성계

를 혁명의 선두로 이끈 최초의 모의자인 것이다. 또한 공민왕 당시 천태종의 대표 승려이면서 이성계와 함께 요동정벌에 나선 신조 스님이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기록이 권근의 (양촌집) 중 ‘수원만인사축삼화엄법회’에 나오는 데 주목할 황 박사는, “신조 스님은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을 형성했던 핵심 참모”라고 추정했다. 이외에도 황 박사는 각종 정·야사의 문헌을 토대로,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말 정치적 군사적 실력자 된 이성계가 무학·신조 스님의 도움으로 조계종과 천태종의 개혁세력을 결집한데 이어, 조선 초기에는 환암·찬영·지천·설오·조생·조선 스님 등과 함께 불교 폐단을 막는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이는 사상적으로도 무신집권기 새로운 불교혁신운동을 주도하였던 수선사결사와 백련사결사정신을 되살린 또 하나의 불교혁신운동이었다”고 의미를 찾았다. 논문의 결론에서 황 박사는 “이성계는 불교계를 신왕조 건국의 또 다른 기반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지분으로 태조 당시 국사·왕사제가 운영되었고 향후 성리학적인 질서를 민중에게 보급 확산시키는데는 건국 후 두 세기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 학술 단신

#### 보조사상연구회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회는 9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법륜사 3층 세미나실에서 제33차 월례발표회를 마련한다. 이번 발표회에선 서울교대 철학과 강사 송진현 씨가 ‘원효의 화쟁적 윤리관’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성철(가산불교문화연구원) 씨와 이병욱(고려대 철학과 강사) 박사 등이 논평자로 나선다. (02)733-5335

#### 일본 법통사 학술대회

불교미술문화재단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삼국시대 불교미술이 전해져 국내 미술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일본 법통사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통사의 미술연구 현황(오오하시 와세다대 교수)’, ‘법통사 금당건축의 교류관계(이강근 경주대 교수)’, ‘법통사 보물과 백제조각의 관계(곽동석 공주박물관장)’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새천년, 미안마에서 전해온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

아난 존자의 일기 1-4

아난 존자가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생애!

아난 존자는 출가 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하던 제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 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철저히 경전의 기록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부처님 일대기와 그 가르침!

이 책은 방대한 뼈마리 원전과 주석서, 소초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부처님의 숭고함과 수행방식이 아직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존의 부처님 일대기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원나 시리 지음, 범라 옮김  
신국판/각권 306쪽/각권 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 3672-7181-5

철학박사 혜江 朴永玉 지음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지장기도의 영험

지장기도 영험록

영기친도는 왜 해 주어야 하는가?  
영기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 박혜강 —

가 : 8,000원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영가양생법인인 천도재를 올릴 때만 지장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며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시고 현재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대자대비로 인도하고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늘과 땅이 울리고 햇빛 깊은 곳,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나는 응성! 지장보살이시여! 현재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액과 고난이 어디에서 올까요? 흔히 말하는 전생의 업장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들은 이 세상의 힘든 모든 일들이 나의 업이려니 하고 체념할 뿐, 다른 돌과구를 찾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재에서 받는 고통 가운데 50%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전생의 업이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인연법과 수많은 조상님의 영향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불자들의 답답함에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많은 기도들 하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이야말로 어떠한 글과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두서없는 글로 인하여 부처님이 욕되지 않기를 받고 또 빌 뿐입니다.

■저서/초발심자의 기초교리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대한불교 관음사 관음불교 교양대학**  
주지 학장 혜강 박영옥합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 (02)917-3854, 917-0408  
FAX : (02)3675-3854

**총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3층  
TEL : (02)3672-7181~5  
FAX : (02)3672-7186